

# 심 사 보 고 서

## 【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	242
------------	-----

2023. 9. 11.  
도시교통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8. 30. / 조성대 의원 등 11명  
나. 회부일자 : 2023. 8. 30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9. 11.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0조 및 시행령 [별표2]의 개정에 따라 일반·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,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·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을 도로여건 및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. (안 제12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- 우리시 택시 면허대수는 일반택시(6개의 업체) 342대, 개인택시 951대로 총 1,293대이며 전체 면허택시 중 개인택시가 73%를 차지하며,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수는 총 415명임(23년 7월기준임)

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에 의거 택시 차령은 개인과 일반택시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령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함, 다만,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및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음.
-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제조사(현대, 기아)에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K5의 제조를 중단하여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만료 대차를 하지 못해 차량 운행 및 운전기사 관리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- 본 조례안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0조 및 시행령 [별표2]에 의거 일반·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 기본차령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운전자 노조가 상호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